

부활절
설교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1~15>



박영철 목사 (대마은혜전도소)

부활절은 초대교회로부터 지켜온 기독교회의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 이유는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목회자이자 신학자는 ‘부활’이라는 이 한 마디 말에 기독교 전체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부활이야말로 인간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꾼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야말로 심판에서 은혜로 돌아서는 순간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순간이며, 모든 상황에서 ‘아니오’를 ‘예’로 돌리게 하는, 소망의 스위치인 것입니다. 만일 부활의 진리가 기독교에서 빠진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진정한 소망의 종교가 아닐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요, 여전히 우리는 절망과 죄 가운데서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고전15: 14-19). 뿐만 아니라 부활은 모든 윤리, 도덕의 기반이요, 모든 선한 삶의 근거가 됩니다.

요즘은 기독교 진리에 대한 불신세계나 타종교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적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화시킵니다. 예수를 인정할 테니 자신들도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는 길이 어찌 한 방향만 있겠느냐고 주장합니다. 무엇을 믿든지 착하고 선하게 살며 힘써 도를 닦으면, 천국에도 가고 극락에도 가고 신전도 되고 영원한 세계로 이어질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만 너무 독선적으로 나가지 말고 함께 손잡고 사이 좋게 지내는 것이 뭐 나쁠 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들어보면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불신자들이 들으면, 유일신을 고집하고,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기독교가 독선적이며 폐쇄적이며 포용성이 부족하게만 들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넘지 못할 선이 있습니다. 불신세계와 타종교에서 아무리 흉내 내려고 해도 낼 수 없는, 그 종교의 시조나 교주들이 죽어 무덤을 남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왜 오직 예수만이 해답인지, 그것을 가장 선명하게, 통쾌하게 드러낸 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보려고 왔다가, 무덤의 돌을 굴러내고 앉은 천사를 목격합니다.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정신을 잃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릅니다. “무서워 말라. 너희가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를 놓았던 곳을 보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라.” 이에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어안이 병병한 채로 내달려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들 앞에 나타나 “평안하나” 하고 인사를 하십니다. 여자들은 황급히 예수님께 경배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거기서 저들이 나를 보리라.”

이것이 부활의 아침,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에서 처음 목격한 여인들이 경험한 내용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의 첫 목격자요 증인인 여인들에게 천사와 예수님은 세 가지 명령을 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주님의 부활을 '믿으라' 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난생처음 겪게 된 이 같은 일로 인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파수꾼들조차 죽은 사람처럼 혼절해 버렸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꿈인지 생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저들에게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약속을 회상시켜 주며, 빈 무덤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대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을 믿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요?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아멘’으로 신앙고백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전한 천사는 분명히 여인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곧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탄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요5:24).”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곧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2) 주님의 부활을 '전파하라' 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첫 사명은, 그 사실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빨리 가서 그들에게 이르라.’ 이것이 부활의 첫 목격자들을 향한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신앙을 간직한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첫 사명은 이 놀랍고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에 사로잡힌 채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빨리 달음질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미리 아시고 위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요20:29).”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신앙은 다시금 도전받습니다. “믿는 자들이여, 주님의 부활을 전파하라!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3)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라' 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을 전파하기 위해 달려가는 여인들을 만나 처음하신 말씀은 ‘평안하나(카이레테)’였습니다. 이 말은 ‘평안’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쓰는 ‘샬롬(에이레테)’과 다른 말입니다. 이 말은 직역하면 ‘기뻐하라’라는 뜻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 무덤을 벗어나 달려가는 여인들에게 우리 주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참된 기쁨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기가 진정한 평안(샬롬)이 없이 어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어디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온갖 것들이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만족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14:27).”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부활에 동참하는 그 백성에게 어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복된 부활의 아침,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도 장차 부활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부활을 힘써 전파하며, 마음껏 기뻐하며,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해외 한인교회 교육과목회협의회 제14차 제주대회 개최

본 총회가 회원교단으로서 참여하여 세계에 흩어져 디아스포라 교회로 있는 한인교회의 차세대 교육과 목회를 주제로 서로의 신학과 실천을 함께 나누며 공유하는 마당으로서 <해외한인교회 교육과 목회 협의회> 제14차 대회가, 지난 2023년2월 15일~17일에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다. 60명 가까운 참석자 중 KCCJ에서는 총회장 나카에요이치목사, 선교위원장 조영철목사를 비롯하여 15명이 참석하였다.

<디아스포라 홈 커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림형천목사(잠실교회)의 주제강연이 있었고, <다디아스포라 교회와 한국교회>란 제목으로 정병준교수(장신대)가,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하여>란 제목으로 한세욱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 운동본부)가 발제를 하였다. 또한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한국의 교회와 사회가 놓여진 상황과 과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주성엽목사(PCUSA), 김광철목사(KPCA), 김신야목사(KCCJ), 박길영목사(UCA), 박효진목사(PCC), 윤마태목사(PCK)가 각기 발제를 하였다.

특별강연으로는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워라-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이라는 제목으로 산림교육 전문가이며 숲해설가로 제주도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동락목사가 하였다.

수요예배를 제광교회에서 가졌고 마지막 날의 아침기도회에서는 나카에요이치 총회장이 설교를 하였다. 성내교회에서 가진 폐회예배에서는 조영철목사가 성찬식의 사식을 맡았다. 마지막 날의 탐방에서는 제주도에서 벌어진 선교의 발자국을 찾아 갔으며 곳곳에 남아있는 식민지 흔적도 방문했다.

더불어 마지막날에 발표된 <선언문>에서는 다양한 과제를 공유하면서 함께 극복하는 길을 더불어 모색하기로 했고 특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혐오발언을 비롯한 온갖 차별을 반대하고 2023년 9월에 100주년을 맞이하는 일본관동대지진 때에 학살당한 조선인을 기억하며 평화를 희구함을 확인했다.

2년 마다 지역을 돌아가며 대회를 가지는데 다음 제15차 대회는 2025년에 가지기로 하였다.

(교육위원장 김신야목사)



2023년도 총회 신학생 및 선교사 Zoom연수회 개최

2023년도 총회신학생 및 총회 가입하는 선교사 연수회가 지난 2월26일 주일 저녁부터 시작하여 3월4일(토) 까지, 이번에도 Zoom연수회로 가졌다.

교육과목으로는 재일대한기독교회 신학과 선교 이념, 역사, 헌법과 규칙, 재일동포 역사 및 재일대한기독교회 역사, 일본기독교회의 신학과 교회사, 이단종교, 에큐메니칼 신학, 재일대한기독교회에서의 목회 전반, 예식, 예전 등의 강의가 있었다.

금번 연수회에 참가한 선교사는 샌다이교회가 청빙하는 마영열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동경제일교회가 청빙하는 강영진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였다.

전국여성연합회

제24회 성경세미나 개최 '주님께 접붙임바 된자로서' 주제로

전국교회여성연합회교육부와 관동지방교회여성연합회 공동주체로 제24회 성경세미나가 2023년 2월23일(목)부터 24일(금)까지 동경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참가 82명)

세미나 강사로는 채은숙목사(오가기교회)를 모시고 「주님께 접붙임바 된자로서~말씀위에 굳게 서리~」라는 주제로 2회의 강의가 있었다.

첫날은 말씀을 바로 알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 둘째날에는 기독교역사의 수치인 노예제 옹호와 백인 우월주의에 대해 배움을 가졌다. 이러한 배움을 통하여 그룹워크로 나누어 의견교환의 시간을 갖고 그룹발표의 시간으로 은혜스럽고 배움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었다.

저녁식사 후 친목회에서는 큰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아주 즐거운 시간도 가졌다.

개회예배에서는 광은주목사(샘물교회) 「보고 배우는 믿음」의 설교가 있었고, 폐회예배는 김필순목사(역대총무) 「인과응보가 아닌 회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 주셨다. 둘째날 아침기도회는 이은주권사(관동지방 부회장)의 사회로 관동지방 소속 교회의 소개와 기도과제를 공유하며 다함께 뜨거운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3년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성경세미나는 친목회를 포함해서 역시 라이브의 참가는 최고의 값진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보고 관동지방여성회 부회장 이은주)



동경교회바

김청곤목사 위임식 거행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로부터 파송



2023년3월19일 주일 오후 츠크바동경교회에서는 새롭게 부임한 김청곤목사의 위임식이 거행되었다.

임시당회장 조영석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개회 예배에서는 강장식목사의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이사야43: 1-7)라는 설교를 하였다.

목사 위임식은 관동지방회장 이명충목사의 사식으로 진행되어 소개, 서약, 선포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축하의 시간에는 김청곤목사가 부목사로 시무했고 선교사로 파송 후원하고 있는 분당 가나안교회의 장경덕목사로부터 영상 축사로 보내왔다.

이번에 관동지방회로부터 츠크바동경교회의 목회를 위임받은 김청곤목사는 1976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홍익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후,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및 대학원을 졸업한 후, 대한예수교장로회(PCK)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가나안교회에서 부목사로 시무하던 중, 2021년말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로부터 일본선교사로 파송받아 2021년1월부터 요코하마교회에서 협력목사로 섬겨왔다. 가족은, 김현미부인과 2남이 있다.

신학교시위가 세미나 개최

목사 안수까지의 과정을 해외 4교단으로부터 배워

2월 27일(월) 19시 온라인 세미나 「목사 안수까지 소명, 선택, 양성, 지원」(신학교시위위원회 주최)이 열려 57명이 웹상에서 한자리에 모였다. 내용은 해외 각 교단 강사로부터 헌신자가 목사 안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듣는 것이었다.

강사는 미국장로교회(PCUSA) 한명성 목사, 호주연합교회(UCA) 장기수 목사, 뉴질랜드장로교회(PCNZ) 한경균 목사, 연합감리교회(UMC) 장학순 목사 등 4명이였다.

각 교단은 한 사람이 헌신을 표명했을 때부터 이 목사 후보생을 교구위원회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극진히 지원하는 체제가 갖춰지고 있다. 공통적인 것은 본인의 소명을 확인하는 작업이 반복된다는 점. 인재 부족 속에서 「지원하는 사람을 다 받는다」가 되기 쉬운 목회 현상에 대한 재고의 필요를 느꼈다.

PCUSA에서는 신학교 입학 후 후보생으로 훈련과 돌봄을 받는다. 학과 이외의 현장실습으로 교회 봉사가 1학기, 병원 체플린 연수가 1학기 부과된다. 목사시험은 ①성경(객관식) ②설교 ③신학 ④헌법 ⑤예배와 성례전이 있어 한꺼번에 5과목에 합격하는 사람은 드물 정도로 엄격하다고 한다.

UCA에서는 실로 헌신에 뜻을 둔 순간부터 18단계에 걸친 과정이 정해져 있다. 1년에 걸쳐 담임목사와 예를 들어 선교여행이나 목회연수(장례나 병상방문 등에 동행), 성경공부법 등의 계획을 세우고 소명을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안수까지 배우자를 포함한 2번의 면담이 있다(교구위원회와 정신과 의사 동석). 후보생에게는 2명의 위원이 붙어 재학 중 계속 서포트. 상세한 리포트 제출 의무가 있으며 본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목사시험은 실시하지 않는다.

PCNZ에서는 후보생들에게 2박3일간 연수회 참석을 요구하며, 이 기간 동안 교구 위원과 정신과 의사에게 면접이 있어 통과하지 않으면 신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 시험은 없고 학문을 깊게 하는 것보다 목회 운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안수에 앞서 「목회자 인턴」으로 생활비를 받으며 훈련받는 기간이 2년간 있고, 3명의 멘토가 붙는다.

UMC는 타 교파에 없는 제도적 특징이 인상적이다. 목사에는 크게 3종류가 있으며, ①장로목사 ②집사목사 ③목사 자격을 갖춘 로컬목사. ①이외에 성례전은 행할 수 없다. ②③은 각각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이며 교단에 사례비 책임은 없다. ③은 1년에 몇 주간의 교육을 5년에 걸쳐 받는다.

또 참석자들로부터 목사의 멘탈 케어에 대한 질문이 있어 다음과 같은 각 교파의 대처가 소개되었다.

목회자의 멘탈 상태가 좋지 않으면 교구에 도움을 구하면 휴양 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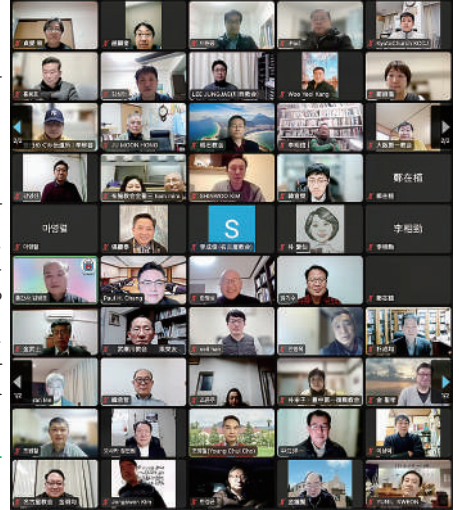


한명성 목사 장기수 목사 한경균 목사 장학순 목사

비나 심리 프로그램 등이 준비된다. 각종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바운더리 훈련(경계선 긋기 훈련)이 있다. 교구 목사 제도(은퇴 목사 등이 담당하는 목사의 목사)가 있다. 목회자의 계속 교육, 윤리교육 출석이 의무화되어 있다. 슈퍼비전 제도가 있어 한 달에 한 번 마음속을 이야기할 수 있고 비용은 교회가 반드시 부담 하도록 돼 있다. 목회자 지원 제도가 있어 교회 문제 상담뿐만 아니라 복지, 건강, 경제, 가족 돌봄도 한다.

듣기만 해도 부러울 따름이라는 다양한 제도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당장 개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각 교파의 역사와 인재층의 두께를 실감하는 내용에 크게 자극 받은 세미나였다.

(신학교시위위원장 박영자목사)



청년회전문지

창립60주년을 맞이하다

11월에 창립60주년 기념대회 예정

청년회전국협의회(전협)는 작년 9월 총회를 거쳐 신체제가 되었다. 5명의 새 임원은 대표 : 엄지용(요코하마), 총무 : 정동호(오사카), 서기 : 토카이나츠키(가와사키), 회계 : 윤홍일(교토), 사업부장 : 한선영 전도사(오사카)이다.

전협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상황과 청년들의 활동이 침체되어 가는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사회생을 바라보며 2023년 활동 계획의 초점을 「전협 창립 60주년 기념행사」(11월 3일 기념대회 예정)에 두었다.

동시에 청년회 활성화의 일환으로 전국에 있는 개교회방문을 실시한다. 3월에는 관서지방회, 4월에는 관동지방회, 5월에는 서남지방회, 6월에는 중부지방회, 7월에는 서부지방회(두번째)를 방문할 예정이며 이 방문을 통해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를 어필하고 협력을 요청하며 전국의 청년들과의 만남과 관계형성에 나선다. 또한 8월에는 근래 개최하지 못했던 전국수련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개교회 방문과 각 행사를 통해 전협은 청년들의 만남의 기회를 늘리고 관계형성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삶을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청년회로 다시 서기를 목표로 삼고 있다. 전국 교회 여러분께 새롭게 걸기 시작한 전협을 향한 이해와 협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 양양일 신도위원장)



5地方회의 定期總會 案内

< 關東地方會 第74回 定期總會 >

・日時 : 2023年 4月29日 (土) 10 : 30
・場所 : 東京教會
東京都新宿区若宮町24、TEL03-3260-8891

< 中部地方會 第60回 定期總會 >

・日時 : 2023年 5月4日 (木) 13 : 00
・場所 : 豊田めぐみ伝道所
豊田市保見町南山275-1、TEL0565-48-2551

< 関西地方會 第74回 定期總會 >

・日時 : 2023年 5月5日 (金) 10 : 00
・場所 : 大阪北部教會
大阪府北区本庄2-11-6、TEL06-6371-1914

< 西部地方會 第39回 定期總會 >

・日時 : 2023年 4月29日 (土) 10 : 30
・場所 : 神戸東部教會
神戸市中央区日暮通6-4-8 TEL078-241-5253

< 西南地方會 第73回 定期總會 >

・日時 : 2023年 5月5日 (金) 10 : 30
・場所 : 福岡教會 福岡市博多区千代5-11-48、TEL092-641-9551

특별연재
2

1923학살의 기억과 십자가 신앙 (2)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년을 맞이하며—

김성제 (일본기독교협의회 총간사)

<2> 1923년 9월 도쿄의 거리에서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마그니튜드 7.9의 대지진이 도쿄를 비롯해 관동지방을 덮쳤다. 그날 오후가 되니 어디선지 모르게 “불량 조선인(不逞鮮人 후테이센진)” 이 폭동을 일으켜 방화를 하고 습격해 온다. 또한 우물에 독을 던져 놓고 있다는 유언비어가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관현에 의한 조선인 구속과 또한 자경단에 의한 조선인 학살이 첫날 밤부터 시작되었다. 다음 날에는 내무성이 계엄령을 발령해 군대를 출동시켰고, 게다가 이날 내무성은 유언비어의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사실이라는 전제로 “不逞鮮人” 습격에 대비하라는 것을 전국 지방장관에게 전문으로 전달했다. 이 계엄령과 전문은 군대와 관현에 의한 조선인 학살뿐만 아니라 이미 일어나기 시작했던 자경단에 의한 학살 행위에 대해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법에 저촉받지 않고 정당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으로 조선인 학살 행위에 먹이를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조선인 살해를, 자신이 사랑하는 나라와 생활의 마을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법과 같이 생각하게 하는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잘 알려진 것으로, 당시 자경단은 자신들의 거리 곳곳에 검문소를 마련하고 누가 조선인이고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선인이 탁음으로 정확하게 발음하기 어려운 “15엔 50센” 이나, 교육 칙어의 암송, 또 역대 천황의 이름을 말하게 하고 잘 하지 못하면 “不逞鮮人”이라고 여겨, 그 자리에서 죽창, 일본도, 또는 쇠갈고리 등으로 찔살했다.

학살은 일반적으로 9월 1일부터 6일까지 계속되었다. 지바현 나라시도 주둔 기병대가 나라시도 수용소에 구속되어 있던 조선인을 주변 마을의 농민들에게 넘겨 죽인 것이 9월 7일부터 9일까지로 기록되어 있다.

자경단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이 있었다고 역사 연구가는 지적한다. ①지진 이전부터 동네 야경단이 조직되어 유언비를 듣고 조선인을 찾아내어 학살하는 자경단으로 바뀌었다. ②관현이 유포한 유언비를 들은 것을 계기로 조선인을 제압하기 위한 자경단이 새롭게 조직되었다. ③관현의 명령으로 자경단이 결성되었다. ④이전부터 있던 지역의 반상회나 조합이 연합하여 자경단을 결성했다고 분류한다. 자경단을 구성하고 있던 사람들은 주로 재향군인회 분회(제국 재향군인회 <1910년 창립>의 하부조직), 소방대, 또한 청년단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자경단 구성의 밑바닥에는 각 마을과 도시 중간층에 속해, 지역사회에서 실권을 잡고 있던 「유지들」의 존재와, 거기에 유도되는 도시 빈민 계층의 사람들(인부, 기술자 등)이 있었다고 역사 연구가는 지적한다(松尾章一 『關東大震災と戒嚴令』、今井清一他 『歴史の眞実 關東大震災と朝鮮人虐殺』). 자경단은, 도쿄에 1,593개, 또 관동 전역에서 3,689개도 존재했다(吉川光貞 『關東大震災の治安回顧』). 愛知県, 長野県, 또 新潟県에도 자경단은 존재했다.

학살당한 조선인 수에 대한 조사 활동은 10월에 들어가서 본격화되었다. 우선 최승만 재일본 조선 YMCA총무(『신동아』 1970년 2-3월호), 吉野 作造(요시노 사쿠조) 『朝鮮人虐殺事件』 『中央公論』 1923년 12월호) 등의 조사가 있지만, 관동 전역(東京, 埼玉, 千葉, 栃木, 群馬, 茨木, 神奈川)에 걸친 포괄적인 조사에 대해서는 재일본 관동 지방 이재 동포 위문반의 「최종보고」(상해 임시 정부 기관지 「독립 신문」 1923년 12월 5일부)

가 있다. 역사 연구가 山田昭次는, 그의 최종 보고에서의 14명의 계산 차이에 수정을 더해, 6,647명으로 세고 있다.

10월부터 시작된 추도와 진상조사 작업에 대해서는 당국은 공식적으로는 허가를 주지 않았으며 끈질기게 조사활동을 철저히 방해했다. 예를 들어 학살 유체의 인원수를 모르게 처리하라는 지시를 자경단에 내보내거나 조사받으려는 시신을 조사단이 도착하기 전에 묻었던 곳을 파서 시체를 없애거나 시체의 인도를 거부하기도 했다.

국가와 사회의 구조가 적대감과 증오, 그리고 멸시를 증만시킨 “不逞鮮人”이라는 차별 용어에 의해 한 번 폭주를 시작해 버리면, 개인이나 하나의 조직의 양심은 모두 무력화되어, 그 선의의 행동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화를 각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9월 6일에 埼玉県の 寄居(요리이) 경찰서 분서에서 구학영(具學泳) 청년을 참살한 것은, 그와 친하게 살고 있던 寄居주민이 아니고, 이웃 마을의 요도에서 달려온 자경단이었다(『숨겨져 있던 역사-관동 대지진과 사이타마의 조선인 학살 사건-』). 山田昭次는 두 명의 조선인을 지킨 千葉県東葛飾郡法典村(現船橋市) 丸山部落의 농민들과 埼玉県児玉郡本庄町の 실 만드는 공장주의 사례를 저서 속에서 소개한다(『關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とその後』). 학살의 광기에 참여하지 않고 인간의 양심과 이성에 따르는 행동으로 나아간 사례의 공통되는 것은, 평상시에 따뜻한 인간적 교류라는 배경이었다고, 山田昭次는 저서 속에서 지적한다. 한일의 기독교회는 여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2017년 3월 2일에 古賀俊昭 東京都議委員이 학살 인원수에 객관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추도문은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회에서 주장한 후, 같은 해 8월 25일에 小池百合子 東京都知事は 조선인 학살 기념 추도 집회에 1973년 이후 매년 도지사가 보낸 추도문을 보내지 않고 거부할 것을 발표. 어떠한 이유라도 죽은 사람들을 동등하게 취급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오늘까지 이르고 있다. 자연재해에 의한 죽음과 학살에 의한 죽음을 동등하게 취급하는가? . . .

인간으로서의 감성과 양심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도지사의 행동에 침묵하고 그대로 묵인하는 사회의 존재에 대해, 기독교회는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를 물으며, 기도하면서 기억하고 싶다.

그 학살 사실을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자경단」강덕상 금형동 『현대사 자료6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미스즈쇼보 1972년, 소수